동서양 인식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공간개념을 중심으로-

민 병 일

부경대학교

Contents

abstrakt
I . 서론
II . 본론
1. 인식의 본질
2. 인식론과 해석학
3. 동서양에서의 인식문제
4. 시각개념에 대한 비교해석적 검토
III . 결론
참고문헌

민 병 일
Min, Byung-Il

부산광역시 문화상,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
부산산업디자인 전람회 운영위원, 심사사위원장, 초대디자이너
아시아경기대회 디자인 전문회원
부산스포츠신문 편집위원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 심사위원장
전국기능경기대회 부산광역시대회 기술부위원장
South Australia대학교 교환교수
현, 부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동대학원 교수
한국비쥬얼디자인학회 회장

abstrakt

Forschung über die Wechselbeziehung zwichen orientalische und westliche Erkenntnisse.

-Schwerpunkt über die Raumerkenntnis-

Die Erkenntnis, die ich erwehne bedeutet eine sinnvolle Erkenntnis, daß der formale Gegenstand eine Beziehung zwichen den inhaltlichen und gegenständlichen Denkweise hat.

Die Erkenntnistheorie wurde in der Neuzeit von I. Kant durch seine Hauptartikel "Kritik der reine Vernunft" ein sesationele Hauptforschung.

In Orient wurde die Aufgabe über die Erkenntnistheorie als Einklang zwichen die Menschheit und das Universum begonnen, und gegensatz in Westen wurde sie als Schwerpunkt von dem Begriff der Wahrheit unter der Verbindungsmöglichkeit, wie der Subjekt den Objekt erkannt.

Die Aufgabe der Erkenntnis wurde zwichen die menschliche Natur und Ontologie behandelt, und die Verständnis über den Gegenstand wurde nicht als formaler Charakter, sondern das Wesen des Inhaltes angesehen.Es ist nicht möglich die westlichen Fassung des Begriffes zu akzeptieren, solange zwichen die Menschheit und die Möglichkeit des Universums nicht zu akzeptieren wie in Orient.

Der Vergleich sollte man richtig von dem akademischen Grund trennen.Weil objektive Verständnis über den Transzendentalisus von Fremder abängig von Denkweise ist.

Ⅰ. 서 론

인식(Erkenntnis)이란 참된 인식을 의미한다. 인식의 형식적 대상은 사유내용과 사유대상 사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사태의 인식은 이 사태가 적절히 파악될 때, 따라서 우리의 판단내용과 객관적 사태와의 -우리가 진리라 부르는- 일치가 성립할 때만 존재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 경우에서 그 실체의 존재에 대하여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인식 내용과 대상과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상황하에서 가능한가라는 물음으로 된다.[1]

인식은 근세에 이르러 인식론의 정초(定礎)로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 중에도 칸트의 인식론의 주저인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은 인식문제를 다룬 탐구 중에서 획기적인 연구서이다. 순수이성비판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비판적 방법 또는 선험적 방법인데 이것은 심리학의 방법처럼 인식의 발생에 관해서가 아니라 인식의 타당성에 관한 것을 문제삼아 인식론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인식이 학문이라는 표현아래서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는 학적 연구의 과정이고, 둘째는 이 과정의 결과, 즉 인식의 총계이다.

학문은 인식의 다수성이 하나의 통일적 전체로 결합될 때 존재하게 되는데 각각의 이론은 그것이 하나의 체계 즉 원리에 의하여 정돈된 인식의 전체가 될 때 학문이라 불린다.[2]

특히 인식의 구조와 방법의 상관성에 있어서 비교학에서 말하듯 학적 주제는 서로 다른 인식과 해석의 형식적 성격이다. 인식구조와 방법론의 상관성으로부터 우리는 일종의 비교학적 가능 근거를 획득하게 되는데 해석학적 언어성과 역사성이다. 해석을 통한 선험적 의식과 타자의 선험적 의식에 대한 추체험은 다른 언어성과 역사성 밑에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1) A. Schneider, Einfuhrung in die philosophie, I p.57. 재인용.

(2) I. Kant,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Naturwissenschaft(Riga, 1786) 서언.

Ⅱ. 본론

1. 인식의 본질

인식의 답은 대상의 모사(模寫)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관점 밑에 자기의 인식론을 세웠고 그 후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완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가시적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우선 감각적 사물을 인식한다. 인간에 있어서 인식작용은 감관 지각(aisthesis)과 더불어 시작된다.

지각하는 자는 가능적으로는 지각된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지각하는 자는 감수(感受)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지각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감수라는 영향을 경험하자마자 지각된 것과 동화되어 같은 것이 된다.[3]

지각은 지각하는 주관이 지각된 대상의 감각적 형상을 스콜라철학에서 밝힘과 같이 자기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된다. 마치 봉인용반지에 새겨진 표시가 재료로서 밀랍(蜜蠟)에 찍힌 것처럼 철 또는 금으로 표시가 찍히는 것과 같이 모든 감관의 감각은 사람들이 감관을 질료로 제외한 감각적 형상을 수용하는 능력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파악된다.[4]

인식에 있어서의 매개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인식작용은 대상의 산출과정이라는 명제의 전제를 통한 것인데 여기에는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의 가능성[5]에 대한 물음으로서 그 전개를 살펴볼 수 있다. 근대 합리론의 본유 관념에 대한 그리고 형이상학적 연역(演繹)으로부터 출발한 인식적 주관주의를 칸트는 엄격한 사유필연성과 보편타당성을 오성 안에 내재적으로 구성함으로서, 다른 한편으로 근대 경험론에 대해서는 현상(phanomena)과 물자체(dingansich)에 대한 예리한 구분을 적용함으로써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와 같이 인식론의 문제영역은 사유와 존재의 일치, 즉 진리에 대한 가능성의 문제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헤센(J. Hessen)[6]은 다음과 같이 전제했다.

첫째, 인식작용에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인식대상에 대한 인식작용의 관조적 태도를

전재하며 이것은 인식작용에 대한 대상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이러한 인식은 사유와 존재의 결합이며

넷째, 주관과 객관의 결합을 위한 매개요소를 어떤 식으로든 상정하게 된다는 것이다.[7]

우리는 마지막으로 '인식작용은 대상에 대한 파악이다'라는 명제의 전제로부터 현상학과 해석학으로 관심을 모을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체 현상학을 포괄하는 주제는 지향성이다'[8] 지향성은 훗설의 논리연구(logische untersuchungen)에서 주로 기술적 심리학의 주제로 등장하나 이후에는 구성적 현상학의 주제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구성적이라 함은 의식의 초월적 작용 즉, 학설의 언어로 '더 많이 사념함'(mehrmeinung)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향성 분석은 지향성이 지니는 의식의 구성작용에 대한 분석이며 이것은 곧 파악작용(auffassung)이자 대상에 대한 의식의 해석작용이다. 그러므로 현상학은 자연스럽게 해석학에 철학적 인식의 토대를 제공한다.[9]

(3) Aristoteles, über die Seele, II. 5.

(4) 같은 책, II. 12.

(5) I.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B.19.

(6) 헤센(J.Hessen, 1889~1971)은 1927년 이후 뮐른대학 철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가톨릭의 종교적 세계관을 학문적으로 전개하고 종교를 인식론적·가치론적으로 정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은 책으로 인식론(Erkenntnistheorie, 1926),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형이상학(Augustinus Metaphysik der Erkenntnis, 1931), 가치 철학(Wertphilosophie, 1937), 막스 셸러(Max Scheler, 1948), 종교 철학(Religionsphilosophie, 전2권, 1948), 철학 교과서(Lehrbuch der Philosophie, 전3권, 1947~1950), 인과율(Kausalprinzip, 1958), 지식과 신앙(Wissen und Glauben, 1959)등 다수가 있다.

(7) Johannes Hessen, Leherbuch der philosophie(Munchen:Ernst Reinhardt Verlag), Erst Band:Wissenschaftslehre 1964: 이강조 역, 인식론, 서광사, 1994, pp.20~23.

(8) E.Husserl, Ideenl, p.337:한국현상학회편,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서광사, 1992, p.227, 재인용.

(9) 오영삼, 인식과 해석의 상관성(비교학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제24회 부산미술대전 학술평론집, 1998, pp.3~5.

2. 인식론과 해석학

선험적 현상학이 해석학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는 선험적 현상학의 탐구주제인 선험적 주관의 근본구조가 해석학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선험적 현상학의 방법인 현상학적 환원 역시 해석학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자에 대한 검토는 이미 앞에서 간략히 검토되었으므로, 후자 즉 현상학적 환원과 해석학적 방법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현상학적 환원은 '판단중지'를 통해 필증적인 인식의 근거를 찾는 방법이다. 그런데 현상학이 전기의 정적 현상학으로부터 후기의 발생적 현상학으로 전개됨으로서 현상학적 환원은 이중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정적 현상학에서는 '명료함-불명료함'이라는 소여방식 사이의 '타당성'과 관련된 지향적 지시관계가 확보하는 방법임에 반해, 발생적 현상학은 하나의 발생적으로 후행하는 소여(所與)가 발생적으로 그에 선행하는 소여로 향하고 있는 발생적인 지향적 지시관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필증적인 인식근거인 선험적 의식을 획득하게 되며(이것은 언어 곧 사유의 문제다), 후자는 타자(텍스트)의 선험의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석학의 언어성과 역사성이다. 이 지점에서 현상학이

해석학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 타자의 선험적 의식은 해석, 즉 감정이입을 통한 추체험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 이러한 타자의 추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해는 해석의 기초가 되며 또한 비교학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비교학은 그 학적 대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사유대상에 대한 공통성이 아니라 사유형식에 있어서의 차별성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타자의 선험적 의식에 대한 이해가능 근거는 사유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지 사유되는 내용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양의 개념적 인식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시간'에 대한 셸링의 분석과 '공간'에 대한 보링거의 분석을 그 예로 살펴보자. 셸링에게 시간은 개념과 존재의 관계로 해석되는데, 자기의 개념(자기가 자기일 수 있는 점의 것)과 자기의 존재(자기가 이미 있는 점의 것)와의 차이 속에서 실존하고 있는 존재자에 의해 그의 힘의 근원은 그의 그때마다의 존재로서가 아닌, 그의 개념에 즉 그의 미래에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불완전하고 그의 개념과 존재사이의 차이 속에 존재하고 있다. 사물이 실제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그것 자신의 개념에 따라 그것으로 가능할 것이 아닌 한에는(영원하지 않은 한에는) 사물들은 시간 속에 있다. 즉 사물은 개념과 존재의 차이인 까닭에 시간 속에 있다. 이와 같이 시간은 특수적 사물이 총체성의 측면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10]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주관의 타자화로서 개념과 존재의 구별이 전제되며 또 그런 한에서만 개념적 구별이 가능하다. 주관의 타자화는 대상화이며 개념화이다. 이러한 개념화는 직접경험(자신으로부터 자신의 경험을 대상화하지 않는)으로부터 물러나는 것[11]인데 바로 추상작용[12]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링거는 '추상과 감정이입'에서 추상작용을 추상충동으로부터 이해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회화에서 추상충동의 결과는 묘사가 평면화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적 묘사가 엄격히 억압되어 전적으로 단일 형태(완결된 질료의 개체성)가 재현된다고 한다.[13] 이것은 감성적 대상을 그 3차원성 때문에 빠져든 불명료함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인간의 근원적 요구라고 한다. 물론 보링거의 문맥상 이러한 추상충동은 서양의 고전적 예술의 욕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상에 대한 분석이 20세기 초 서구적 사유로부터 이해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그것은 인식에 대한 전통적 사유방식의 대전제를 지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즉 주관과 객관의 매개가능성으로부터 그 전제가 되는 결합가능성 자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의 결여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양의 전통적 철학과 예술에 대한 이해가 해석학적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19~20세기를 통한 서구적 인식개념으로부터 이루어진 동양에 대한 이해는 사유형식 자체의 차이로, 근본적인 인식론적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서비교학은 그 학적대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사유내용에 대한 공통성이 아니라 사유형식에 있어서의 차별성이 먼저 해석되어야 한다. 이 점이 밝혀진 이후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비교학적 연구의 성과가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14]

(10) Friedrich Kummel, uber den Begriff der Zeit, Max Nieemeyer Verlag Tubingen, 1962 권의무 역, 시간과 개념의 구조,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6, 셸링 편 참조.

(11) Rudolf Arnheim, Visual think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이대출판부. 1982. p.263.
아른하임은 추상을 기술하는 대립적인 두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전통적 관념으로 보면 직접경험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지각과 사고의 이분법

b. 맥락에 대한 극복이 아니라 맥락의 존중이다.

여기에서 a항에 대한 예로 W. Worringer의 「Abstraction and Empathy」를 들고 있다.

(12) 같은 책. p.217. 재인용.
추상(abstraction)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다. 이 단어는 제거를 의미하는데 그 까닭은 abstrahere라는 동사는 어떤 곳에서 무엇을 적극 끌어내고 또 어떤 것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끌어냄을 당한다는 의미이다. Rene Pellet는 '구체지각'으로부터 '추상개념'으로 나아가는 발달을 기술하는 책(Des premieres perceptions du concret a la conception de l abstrait. Lyon Bos&Riou. 1938)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신이 구체표상 외부의 것을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지각적으로 주어지거나 기억되는 내용을 근거로 한 어떠한 지원없이 창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추상'이란 단어를 그 가장 고상한 의미로 이해한다. " 추상이란 그에 의하면 구체성을 넘어서고, 구체성으로부터 독립한 정신의 체제화이다. 추상적 사고는 감각경험에 의지하는 대신에 개념으로 일어난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13) W. Worringer. Abstraktion and Einfuhlung. Munich. 1911 Abstraction and Empathy. NewYork. Intern. Univ.Press. 1953 추상과 감정이입. 계명대학교. 1982. pp.33~35.

(14) 오영삼. 인식과 해석의 상관성(비교학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제24회 부산미술대전 학술평론집. 1998. pp.3~5.

3. 동서양에서의 인식문제

경험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다양하게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면 형이상학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형이상학적 대상은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현상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상으로부터 대상을 향하여 돌진하여 내부의 비밀을 캐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인식작용은 간접적, 추론적인 인식작용이다.

서양에서 전통적 형이상학은 대부분 그 한계와 제한에 대하여 어떠한 명석한 관찰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형이상학은 스콜라적 공리 -모든 존재는 알 수 있다- 가 표현한 근본 견해에 의하여 지배되는 고대사유에 너무나도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재론에서 이 공리를 비판적으로 검사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공리가 결코 자명하지 않다는 정도로만 언급하여 둔다. 이 공리는 오히려 사람들이 아폴로적 세계상으로 특징 지운 고대의 세계관에 대한 공식이다. 이 공식은 성경의 세계관, 즉 '예언적 세계상'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반립적으로 대립한다. 존재가 여기서는 비합리적인 어떤 것으로서 기적과 비밀로서 체험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이해가능성을 초월한다. 모든 사람은 이 세계관을 형식적으로 옮겨 쓸 수 있었을 것이다.[15]

우리는 실체성은 실체와 유용성의 관계이고, 인과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실체성과 인과성이라는 범주적 개념은 우리들의 사유에 의하여 창조적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 경험을 고려하고 내적 경험의 안내를 받고서 산출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형성할 때 차지하는 경험의 몫은 실재론적 사유로는 너무나 자명하다. 간접적, 추론적인 인식은 비교 해학적 검토를 해 볼 때 사유내용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사유형식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서 동양의 인식론에 대하여 논해보자. 동양의 인식론은 인성론과 본체론과의 관계속에서 명실관(名實觀)이나 진리관(眞理觀)으로 출현한다. 본체론과 인성론으로부터 우주에 대한 본질 해명은 인간 심성의 본질 해명으로 이어지며 심성과 그것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고려가 그 중심 문제가 된다. 따라서 동양철학은 주관적 심성과 객관적 우주의 결합 가능성 자체에 대한 문제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의 인식적인 매개 가능성은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관 객관의 결합 가능성을 전제로 매개 가능성을 문제삼는 서양의 인식론에 비하여 인식주관의 대상에 대한 관계는 인성론으로부터 다루어졌다. 인성론에서는 인간의 심성에 대한 규정을 외부조건과의 관계로부터 상황적 맥락 아래에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적 상황들과 인간의 구체적 반응들의 관계를 문제삼게 된다. 이로부터 인식의 문제 역시 개별적이고 구체적 일 수밖에 없다.

미적공간에서 제1차적 형식은 작품을 구상하는 관점에서 근거 지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작품공간을 색채관계 등에서 결정지을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조형적 구성 -컴포지션- 의 의미를 쉽게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 아래 구성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한다면 따라서 구성(공간)적 형태를 갖춘 색채의 리듬 또는 모티브를 놓치고 말것이다. 작가나 감상자들이 구성에 관한 의미를 찾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우리는 2D적 차원에서 잘 표현된 사과를 보고 3D의 인식에 몰입하기도 하고 동양의 운무에 가린 산수화를 보고 가상의 공간감이나 원근감을 인식한다. 몬드리안의 구성에서는 색채의 무형적 리듬이나 모티브를 얻기도 하고 동양의 사군자에서는 기개(氣槪), 절개 따위의 감정에 젖는다. 이같은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 미적으로 훈련된 지각은 두 가지 작품사이에 실험적인(experimentell)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다섯가지의 표제를 가진 〈그림1〉을 보자. 첫째, 틀속에 매달린 정사각형 둘째, 위에서 본 전등갓 셋째, 밑에서 본 전등갓 넷째, 터널의 투시 다섯째, 윗부분을 자른 피라밋의 조감도 등의 주제(Subjekt)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이 어떤 주제로 보이는가에 따라 공간적 가치가 결정된다.[16]

〈그림1〉

이러한 공간개념은 모든 인식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의식(개념)의 실천으로 어느정도 객관적 실재와 일치하여 입증되어 진다.

(15) 이것에 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Johannes Hessen, Platonismua und Prophetismus (Munchen, 1939)참조, 재인용.
(16) Virgil Charles Aldrich, 김문환 역, 예술철학, 현암사, 1975, p.51.

4. 시각개념에 대한 비교해석적 검토

아른하임은 「시각적 사고」에서 서구의 전통적 사유는 사고(우월한 것)과 지각(열등한 것)의 구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사고는 시각적 사고이며, 사고와 시각이 같은 근원에 뿌리를 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각 역시 개별이 아닌 보편에 대한 사고의 개념화로 그 전이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서양에서의 사고과정은 바로 시각적 인식과정이다. 이러한 시각적 사고로부터 개념화가 발생한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시각은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것은 미美의 기원으로부터도 이해할 수 있다.

동양에서의 인식과정은 개별에 대한 비유를 통해 보편을 체득한다. 왜냐하면 감각이란 개별적이고 개별적이어야 그 순수성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미 역시 감각 그 자체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규정이 된다. 우리는 동양의 미적 특성으로부터 인식론적 특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개별적이고 감각적인 인식과정 자체를 순수하게 보존하려는 의도성이다.(이것을 George Rowley가「Principles of Chinese Painting」에서 규정한 중국의 미 개념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17]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삼원법(三遠法)을 중심을 원 개념에 대한 사유의 형식적 분석과 내용적 분석을 논의해 보자. 삼원법은 시문학을 회화 면에서 수립한 것이다. 즉 송(宋)대에 시의 특색을 평담미로 규정하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이 평담미가 회화에 적용된 것이 평원법(平遠法)이라는 것이다. 우선 평담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평담은 충담과 비슷한 의미다. 당(唐)의 사공도(司空圖)는 「二十四詩品」에서 충담 제일품으로 삼고 있다. 그는 충담의 표현 형태와 특징을 '소박함은 말없이 머물고, 현묘함은 미미하게 들어 나며, 우주의 조화를 음미하고, 홀로 학과 더불어 날아간다. 이것은 마치 은혜로운 바람을 맞아, 옷깃을 휘날리며 대나무 소리를 감상하고, 그 멋을 싣고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 경지를 마주침은 깊지 아니하고 나아간 즉 드물다. 그것은 형상을 벗어나 있고, 붓을 들자마자 이미 도달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평담미는 개별적이고 미각적이며 본질적이다. 이러한 평담미를 미적 기준으로 삼는 송대의 회화는 삼원법에 의해 정점에 이른다. 문제는 2차원적 평면을 통하여 자유 해탈이라는 작가의 정신을 표현하는 기법으로서의 해석이다. 여기서 공간적인 -遠- 의 해석은 시각적 사고라는 의미에서의 서양의 투시법과 비교될 수 없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공간이란 등질의 공허하고, 무한대하며 또한 무한히 분할 가능한 매체로서, 어떤 양식으로도 분해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매체는 결코 지각되지 않으며, 다만 개념으로서 생각될 뿐이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지성이 쉽사리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갖는 것을 무기물질, 특히 고체를 다룰 때에 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성은 불연속적인 것밖에 명료하게 표상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지성의 공간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은 2D 혹은 3D에서의 투시법에 대한 비판과 직결된다. 투시법으로서의 원근법이 지성의 공간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맥락 하에서 우리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한 전제를 추론할 수 있다.

황금절의 예를 보자. 직사각의 공간형태에서 〈그림2〉은 단변과 장변과의 비는 장변과 장, 단 양변의 합친것과의 비에 해당한다. 대체로 단변은 5, 장은 8의 경우가 된다.〈a:b=b:(a+b)〉

〈그림2〉

〔A〕 〔B〕 〔C〕

여기서 직사각〔A〕의 폭을 증가시키면 그것이 정사각공간에 가까와질때는 결연한 직립(直立)의 인상은 점차 애매해지며 둔하고도 비대한 인상을 준다.〔B〕 그

리고 폭이 너무나 줄어들때는 빈약하고 여윈 인상을 준다.〔C〕 이렇게 수직의 방향은 수평의 방향에 뚜렷한 인상을 주며 마치 약소한 신하를 예속한 군주(君主)처럼 이 공간의 고도에는 공허가 있으나 황금절에 의한 〔A〕에는 〔B〕의 둔성과 〔C〕의 빈약성을 피하면 가장 알맞은 평형(平衡)의 원리에서 오는 쾌감을 준다.

그것은 바로 대상을 인식하는 사유의 형식적 차별성이다.

우리는 지금 공간을 칸트에 의해서 종합되어진 '감성적 직관 형식'이나 푸코의 '역사적 선험성'으로부터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칸트뿐만 아니라 푸코(Foucault) 역시 계몽적 인식에 뿌리를 둔 시각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의 출발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17) George Rowley, Principles of Chinese Paint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p.34.

Ⅲ. 결 론

동서양의 인식론적 차이는 주관과 객관의 결합가능성과 매개가능의 차이로 구별 할 수 있다. 동양에서의 인식론적 문제는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전개된다면 서양에서는 이러한 결합가능성을 전제하고 주관이 어떻게 객관을 인식하는가라는 것에 진리의 개념이 인식론의 중심사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식은 참된 인식과 동의어이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인간과 우주의 본성에 대한 문제가 일차적이며 중심적이다. 우리들의 인식활동의 본성은 '대상의 다양(多樣)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총괄함으로서 다(多)의 일(一)로 관통하려는 경향이 있음이 특색이다. 우리에게 쾌감을 환기함에는 대상 그 자체가 귀일성(歸一性)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는 역시 높은 가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다소간의 특수한 인식에 대한 규명도 깊이 파고든다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인식의 문제는 인성론과 본체론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지고 대상에 대한 이해의 형식적 성격보다는 내용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에서처럼 인간 그리고 우주의 결합가능성 자체를 문제시하는 한 서양과 같이 대상에 대한 개념적 파악인 시각적 인식론은 추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적 의도성을 완전히 그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비교는 그 학적 대상에 있어 근본적인 사유 내용에 대한 공통성(유사성)이 아니라 사유형식에 있어서의 차별성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타자의 선험적 의식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능 근거는 일차적으로 사유하는 방식에 의존하며 사유되는 내용에 근거하여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1. Johannes Hessen, Leherbuch der philosphie (Munchen: Ernst Reinhardt Verlag), Erst Band : Wissenschaftslehre, 1964 : 이강조 역, 인식론, 서광사, 1994.
2. 김영민, 현상학과 시간, 까치, 1994.
3. 고위공, 해석학과 문예학, 나남, 1989.
4.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997.
5. R.Arnheim, Visual Think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6. 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이화여대출판부, 1982.
7. W.Worringer, Abstraktion und Einfhlung, Munich, 1911 : Abstraction and Empathy, New york, Intern. Univ. Press, 1953 : 추상과 감정이입, 계명대학교, 1982.
8. F.Kummel, Uber den Begriff der Zeit, Max Nieemeyer Verlag Tubingen, 1962 : 권의무 역, 시간의 개념과 구조,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6.
9. 김규영, 시간론, 서강대학교출판부, 1987.
10. 오영삼, 인식과 해석의 상관성(비교학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제24회 부산미술대전 학술평론집, 1998.
11. 미학연구회편, 미학(현대예술미의 형성원리), 문명사, 1975.
12. Virgil Charles Aldrich, 김문환 역, 예술철학, 현암사, 1975.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